

1930年代 日本의 重化學工業化와 財閥間 競爭

徐廷翼

일본의 1930년대는 중화학공업의 주도하에 경제성장을 달성한 시기였다. 舊財閥과 新興콘체른을 중심으로 하는 財閥資本은 경쟁적으로 중화학공업 부문으로 진출하였다. 1930년대 전반기에는 신흥콘체른이 군수경기를 타고 구재벌보다 앞서 중화학공업에 진출하여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시경제하에서는 구재벌이 강력한 금융력을 바탕으로 중화학공업 부문에 진출하여 신흥콘체른을 압도하여 갔다. 신흥콘체른 가운데 일부는 식민지로 진출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구재벌과 달리 산하에 금융기관을 갖지 못한 신흥콘체른은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해체되어 갔다.

I. 序 論

戰前 일본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재벌은 동족적 자본을 중심으로 다각적 사업경영을 하는 기업집단이었다.¹⁾ 여기에는 江戸時代부터 발전하여 명치유신 이후 재도약에 성공한 구재벌(三井·三菱·住友 등)과 1930년대에 콘체른화한 신흥콘체른(日産·日窒·森·日曹·理研 등)이 포함된다.

구재벌은 공통적으로 동족으로 구성된 폐쇄적인 持株會社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으며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구재벌은 일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등장한 중화학공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수입대체적 중화학공업화의 진전과 군수확대에 따라 구재벌의 중화학공업으로의 투자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산하기업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서 재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기업집단으로서의 규모가 갑자기 커짐에 따라 자금조달능력을 강화할

호서대학교 경제학과, 충남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산 29-1, 337-870.

1) 石井寬治 [31], p. 207.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주회사인 재벌본사의 주식회사화가 진척되고 재벌본사에서 직계 회사로 경영권도 이양되었다.

구재벌과 달리 중화학공업에 적극 참여한 것은 日産·日窒·森을 비롯한 신흥재벌이었다. 이러한 신흥재벌은 193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과정에서 日本興業銀行등의 국가자본으로부터 금융적 지원을 받는 한편, 군부의 대륙침략과 함께 발달한 군수공업과 결합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만주사변 후에는 만주경영에도 적극 참여하여 최대의 신흥재벌인 日産은 1937년 '만주국'으로 이주하여 半官半民의 滿州重工業開發株式會社로 재편성되었다.

이 시기 구재벌과 신흥콘체른 간에는 산업구조의 전환 및 원료자원의 확보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과점적 경쟁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으로 중화학공업에서의 재벌의 지위가 약화된 것은 아니었다. 신흥콘체른은 전기·화학 등의 신흥공업에서 그리고 구재벌은 제철·조선 등의 전통적 중화학공업에서 우월한 지위를 고수하고 있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구재벌이 전기·화학 등의 신흥공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 신흥콘체른을 능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막대한 자금력과 기술적 우위력을 바탕으로 한 구재벌과의 경쟁에서 신흥콘체른은 패퇴하고 결국 몰락하게 된다.

재벌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은 매우 좋은 사업기회였다. 軍需生産擴充計劃과 전쟁으로 재벌은 공황에서 최종적으로 탈출하여 급속한 경제성장과 중화학공업화를 달성하였다. 제2차대전 후에도 중공업은 거의 10년간 신규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전시중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재벌은 중화학공업에 진출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의 결탁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결국 이 때문에 제2차대전 후 전쟁책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재벌해체'를 맞이하게 되고 이후 일본의 재벌은 새로운 형태로 재편성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시경제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신흥·구재벌이 만주사변 이후 전시체제하에서 중화학공업에 경쟁적으로 진출하여 가는 과정과 그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중화학공업화과정에서 1930년대 전반까지는 신흥콘체른이 우위에서 있었지만 중일전쟁 이후 1930년대 후반에는 구재벌이 신흥콘체른을 능가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규명하려고 한다.

Ⅱ. 重化學工業의 展開와 新·舊財閥

1. 重化學工業과 新興콘체른의 發展

신흥콘체른의 발전은 1930년대에 급진전된 일본경제의 중화학공업화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표 1>에는 신흥콘체른의 사업기반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나타나 있다. 1937년의 경우를 보면, 신흥콘체른 산하기업의 불입자본액 중 70%가 중화학공업부문에 속하여 구재벌의 31%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흥재벌은 重化學工業콘체른이라 불리고 있다.²⁾

그러나, 1930년대 전반기에는 단지 산하기업의 구성비뿐 아니라 중화학공업부문의 발전속도에 있어서도 신흥콘체른이 구재벌을 능가하고 있었다. 구재벌 산하의 중화학공업의 불입자본금액은 1930년부터 1937년에 걸쳐 1.7배 증가하였고 그 증가의 절대액은 3억 6,500만 엔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신흥콘체른의 중화학공업부문의 성장률은 4.8배, 불입자본금 증가의 절대액은 4억 5,000만 엔으로 모두 구재벌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구재벌이 중화학공업 가운데서도 造船, 電氣機械, 電線, 製鋼 등 구래의 중공업부문에 유력기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규기업의 참가를 거의 허락하지 않는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던 반면에, 신흥콘체른은 合成硫酸, 電解法소다, 人絹絲, 알루미늄, 자동차 등 특히 1930년대에 들어서 급성장한 신흥중화학공업부문³⁾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화학공업 내부에는 구재벌과 신흥콘체른 사이에 일종의 分業關係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구재벌이 매우 신중하게 신흥의 중화학공업부문으로 진출한데 비하여 신흥콘체른은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도전하여 일찍이 그 기업화에 성공하였기 때문이었다.

“신흥콘체른의 발생과 발전은 금융자본 거두들 사이의 격렬한 競争戰의 직접적인 결과이고, 또 제국주의하에 있어 개개의 자본주의적 財閥, 콘체른 기타 제독점의 불균형적 발전의 명백한 예였다. …구재벌이 동요하고 있는 사이에 군수산업 제 부문 발전의 장본인으로서 나타난 것은, 잃을 것은 없지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자본가들이었다.”⁴⁾

2) 立松潔 [45], pp. 157~158.

3) 신흥공업발전의 주요인으로서의 첫째로, 금본위제의 포기 이후 환시세하락에 따른 무역의 진전 및 재정, 특히 군수인플레이의 진전, 둘째로, 국제연맹탈퇴 후 경제봉쇄의 위협과 세계적인 불경기계의 추세에 자극된 자주자급경제의 촉진, 셋째로, 안정적인 원료공급원으로서의 만주자원에 대한 기대 및 시장 확대, 넷째로, 국산품생산 및 애용의 보급 등을 들 수 있다. 東洋經濟新報社 編 [6], pp. 37~72.

4) ハヴズネル(社會經濟調査會譯) [53], pp. 319~320.

〈표 1〉 財閥別·産業別 投資의 構成(1930·1937年)

(單位: 100萬 円, %)

重工業 A	188	170	58	-	416	66	-	-	66
B	269	230	137	3	639	269	15	49	333
化學工業 A	28	-	2	-	30	-	39	15	54
B	82	65	42	3	192	100	108	29	237
纖維工業 A	88	34	-	13	135	-	6	-	6
B	155	41	-	15	211	-	-	-	-
窯業 A	22	7	3	-	32	-	-	-	-
B	38	18	-	-	56	-	-	-	-
食料品 A	61	78	-	-	139	-	-	-	-
B	62	126	-	-	188	70	-	3	73
其他工業 A	124	11	-	10	145	-	-	-	-
B	206	10	-	24	240	6	-	-	6
電氣·가스 A	22	13	-	24	59	-	-	-	-
B	65	55	19	52	192	6	64	61	131
運輸 A	-	87	63	-	150	-	-	-	-
B	23	103	63	13	202	7	2	-	9
商業貿易 A	133	20	-	6	159	-	-	-	-
B	180	39	15	11	245	2	3	-	5
金融 A	70	108	59	126	363	-	-	-	-
B	71	143	61	141	416	1	-	-	1
總計 A	747	540	242	193	1,722	66	45	15	126
B	1,177	848	384	264	2,672	474	198	142	814
重化學工業化率 A	28.6	31.5	24.8	-	25.9	100	86.7	100	95.2
B	29.8	34.8	46.6	1.1	31.1	77.8	62.1	54.9	70.0

자료: 柴垣和夫 [34], pp. 278~279. 高橋龜吉·青山二郎 [2], p. 166.

주: A는 1930년, B는 1937년. 숫자는 중화학공업화율을 제외하고는 拂入資本金.

이제 구재벌을 능가할 정도의 발전을 이룩한 신흥콘체른과 신흥중화학공업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신흥콘체른 가운데 특히 日窒·森·日曹은 電爐工業을 포함하는 광의의 전기화학 공업을 기반으로 발전한 콘체른이었다. 1920년대 일본에서는 電力革命이 진전되었고, 日窒·森·日曹의 각 콘체른은 이 전력혁명과 결합함으로써 그 기초를 다질 수가 있었다.⁵⁾ 그리고 日窒의 창시자 野口遼이 東京帝國大學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전기기술자

5) 林健久·山崎廣明·柴垣和夫著(宇野弘藏 監修) [39], pp. 156~164.

였으며, 日曹의 창시자 中野友禮는 京都帝國大學에서 스스로 電解法에 의한 가성소다의 제조법을 개발하였다는 것이 그들을 전기화학산업과 결합시킨 계기가 되었다. 森 콘체른의 경우는 그 창업자인 森龜和과 공동사업자인 鈴木三郎助가 경영하는 東信電氣와의 관계가 계기가 되어 전기화학공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전기화학공업계의 신흥콘체른의 급성장을 가능케 한 것은 電解法에 의한 合成硫酸工業이었다. 硫酸은 가장 중요한 화학비료로서 농촌에서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었지만 외국제품과의 경쟁으로 국내에서 이 사업을 확립시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日窒콘체른의 경우 그 중심기업인 日本窒素肥料가 1921년 카살레(Casale)식 암모니아 합성법을 도입하여 유안사업을 變成法에서 合成法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함으로써 1920년대의 불황기에도 고이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는 기업가정신에 가득 찬 野口の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野口는 합성암모니아사업의 장래성을 정확하게 예견하였으며,⁶⁾ 카살레식 기술의 도입에서 보여 준 것처럼 과감히 의사결정을 하여 남보다 앞서 신기술을 도입하였다. 1927년에는 식민지 조선에 진출하여 朝鮮窒素肥料를 설립함으로써 화학비료부분에서 부동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조선질소비료와 일본질소비료를 합한 日窒그룹의 유안생산능력은 1930년 현재 일본 전체의 57.5%(21만 8,718톤)라는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후 타 회사의 참가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37년에도 여전히 35.5%(48만 149톤)를 차지하고 있었다.⁷⁾

森콘체른에 있어서도 合成硫酸공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森이 화학비료공업에 진출한 것은 관계회사인 東信電氣의 잉여전력의 소비선을 확보할 필요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이를 위해 東信전기와 그 전력공급선인 東京電燈과의 공동출자로 1928년에 昭和肥料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⁸⁾ 그리고 森은 이 회사의 專務取締役에 취임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자가 되고 국산기술(東京工業試驗所에 의한 암모니아합성)로 유안생산의 기업화를 성공하였다. 이를 계기로 生命保險團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全國購買組合聯合會와의 제휴로 판로를 확보하는 등 뛰어난 경영수완을 발휘하

6) 野口蓮은 1914년에 『工業上으로 본 空中窒素固定法』이라는 책을 간행하였다. 이 책에서 野口는 “石灰窒素는 증기선, 암모니아합성법은 항공선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 窒素固定工業의 現今은 석회질소법만이 오직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암모니아의 제조법은 그 同一電力에 대한 學理的 最大量은 금후 기계적 연구의 진보와 함께 점차 증가하여 머지 않은 장래에 석회질소를 능가하는 勢를 보여 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1914년은 겨우 硫酸생산이 계도에 오르기 시작한 시기이다. 논문을 쓴 것은 그 이전이라고 보면, 野口는 석회질소법에 의한 유안의 상업적 생산과 관련된 기술상 그리고 경영상의 문제해결에 고투하고 있을 때 이미 암모니아제조 다음 단계를 명확하게 예견하고 있었다. 大鹽武 [22], p. 65.

7) 持株會社整理委員會 [10], p. 527.

8) 三宅晴輝 [7], p. 162.

여 대공황기에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갔다. 소화비료는 1932년에는 이미 조선질소 다음으로 일본 제2위의 생산능력을 가진 유안제조업체가 되었지만, 그 후에도 石炭法에 의한 유안제조기술을 도입하여 1937년까지 그 생산능력을 倍增시켰다.

森의 사업은 純粹持株會社인 森興業이 日本電工, 昭和肥料, 昭和鑛業, 東信電氣, 日本化工 등의 주식을 소유하는 기업결합형식이었기 때문에 큰체문화한 재벌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森興業의 지주비율은 日本電工에서 15%, 昭和肥料에서는 6.7%에 지나지 않아 자본소유의 의의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유안에 못지 않게 신흥큰체른 발전의 기반이 된 산업으로서 중요한 것은 인건사공업이었다. 일본의 인건사공업은 1926년의 수입관세 인상 이후 급속히 발전하여, 1937년에는 미국을 능가하여 세계 1위의 생산고를 달성하고 세계 인건사수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발전한 당시의 인기산업이었다.⁹⁾

日窒의 인건사공업으로의 진출은 野口가 1922년에 日本棉花社長 喜多又藏과 공동출자로 旭絹織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野口는 조선에서의 유안사업의 시작과 함께 과잉화된 日本窒素肥料 延岡工場의 암모니아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1928년에 독일의 벤베르그社로부터 銅암모니아법에 의한 벤베르그絹織기술을 도입하여 1929년에 日本벤베르그絹織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¹⁰⁾ 1933년에는 이 두 회사와 日本窒素肥料 延岡工場이 합동하여 旭벤베르그絹織주식회사가 발족하였다. 이 會社는 帝人, 東洋레이온, 日本레이온, 昭和레이온, 倉敷絹織과 함께 인건사공업에서의 독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¹¹⁾

日窒큰체른의 최대사업기반이었던 電解法에 의한 가성소다공업도 인건사공업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한 부문이었다. 中野는 스스로 개발한 가성소다의 생산을 기업화하기 위하여 1920년에 日本曹達株式會社를 설립한 다음,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1920년대의 불황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하였다. 그 후 日本曹達은 1930년대의 환시세의 하락과 인건사공업의 발전으로 가성소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높은 수익을 얻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인 다각화와 큰체른의 형성에 성공하였다. 소다의 수요증가로 참가 기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日本曹達의 전해법가성소다의 생산능력은 1936년에 2,133톤으로 여전히 일본최대규모를 자랑하였다. 또한, 日窒큰체른의 旭벤베르그견사도 원료의 자급을 위한 가성소다생산에 착수하여 같은 해에 日本曹達 다음 가는 제2위의 생산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日窒큰체른의 주요 기업을 보면 모회사 日本曹達의 중심사업인 전기화학, 금속제련

9) 林健久·山崎廣明·柴垣和夫 著(宇野弘藏 監修) [39], pp. 257~261.

10) 大鹽 武 [22], p. 75.

11) 山崎廣明 [27], p. 296.

등의 제사업에서부터 광업(일본광업주식회사), 암모니아법소다공업(九州曹達), 시멘트 공업(日出시멘트), 인견·‘스프’ 공업(日曹인견펠프), 제강업(米子제강소), 석탄업(木戶炭業), 製鹽業 등 다방면으로의 다각화가 이루어졌다.

알루미늄공업도 森 콘체른의 日本電氣工業(日本沃度會社가 1934년에 개칭)이 최초로 기업화에 성공한 새로운 공업분야였다. 이 산업의 경우도 1920년대까지는 수입품에 압도되어 일본에서의 기업화는 곤란하였지만, 重要兵器인 항공기의 재료였기 때문에 정부와 군부에 의해 그 국산화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찍부터 알루미늄공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森은 1930년대에 엔시제가 하락함으로써 기업화의 전망이 생기자 곧바로 알루미늄사업에 착수하여 1934년 일본 최초로 알루미늄생산에 성공하였다.¹²⁾ 이로써 그 때까지 중소기업에 불과하였던 日本電氣工業은 일약 일본의 유력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 후 구제벌에서도 점차로 알루미늄사업에 참가하였지만, 1937년의 경우 日本電工의 알루미늄생산량은 일본 전체의 45%로서 日滿알루미늄(25%), 日本알루미늄(15%), 住友알루미늄精鍊(8%)을 압도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日窒·森·日曹 콘체른이 전기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한 산업콘체른인데 비하여 日産 및 理研 콘체른은 그 사업기반의 형성에 있어 약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理研콘체른은 재단법인 理化學研究所의 ‘發明의 工業化’를 기초로 형성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발명의 공업화’는 연구소의 제3대 소장인 大河內正敏이 1927년 理化學興業주식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시작되었는데, 그 후 理化學에 의해 공업화된 사업이 잇달아 독립회사로서 분리되어 콘체른을 형성하게 되었다. 1932년 理研마그네슘, 1934년 理研피스톤링, 1935년 理研특수철강, 1936년 理研感光紙 등이 그러한 회사였는데 그 외에도 중소기업의 매수와 계열화로의 편입에 의해서도 理研기술의 공업화가 진전되었다. 大河內는 콘체른의 초기단계부터 특허의 판매보다는 자력에 의한 ‘발명의 공업화’에 열심이었고, 초기의 발명 가운데 많은 것이 理研의 손에 의해 직접 공업화된 것이었다.¹³⁾ 大河內는 당시 사회 일반에서 생각되어진 것 이상으로 공업경영에 적극적이었다.

理研의 발명품 가운데에서도 피스톤링은 그 성능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1931년 가을부터 中島飛行機社는 항공기제작에 이것을 전량 사용하게 되고, 자동차공업의 발전에 따라 自動車 링의 수요도 증가하여 생산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理研피스톤링은 군수의 확대와 함께 理研콘체른의 중심기업으로 급성장하여 갔다.

12) 三宅晴輝 [7], p. 208.

13) 齊藤憲 [50], p. 134.

1937년 상반기 말 현재 理研콘체른의 주요 기업 가운데 지주회사의 기능을 하고 있던 것은 주로 理化學연구소와 理化學興業이었다. 理研피스톤링, 理研특수철강, 富國工業 등도 직계기업의 주식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기업 상호간에 주식의 공동소유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理研콘체른 산하에는 이렇다 할 대규모 기업이 없었고 그 규모도 매우 작았다. 理研콘체른은 콘체른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독점체'라는 인상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다.

日産콘체른은 그 前身이 久原재벌이었다는 점과 그 사업기반에서 다른 신흥콘체른과 구별된다. 久原재벌은 久原房之助가 경영한 久原광업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여기에 久原광업 日立鑛山の 전기기계수선부문에서 발전한 주식회사 日立製作所(1902년 설립)와 제1차대전기의 불에 편승하여 설립되거나 산하에 편입된 해운(일본기선), 조선(大阪鐵工所), 무역·상업(久原商事) 등의 제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체였다. 그러나, 久原재벌의 다각화는 투기적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1920년의 전후공황으로 타격을 받았다. 특히 久原商事가 1억 엔 이상이나 되는 손실을 내고 파산한 것은 재벌의 주력인 久原鑛業이 産銅業의 부진으로 곤경에 빠진 것과 겹쳐 久原재벌은 회복불능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久原의 처남인 鮎川義介가 久原재벌의 재건을 맡게 되어 1928년 3월 鮎川은 久原鑛業社長에 취임하였다.

鮎川의 정리방침은 久原광업을 공개지주회사형태로 바꾸어 자본조달기구를 확립·정리하는 한편, 산하의 제사업을 종합적으로 통할·관리하기 위한 경영조직을 재편·정리하는 것이었다.¹⁴⁾ 이 방침에 따라 久原鑛業의 이름을 日本産業(이하 日産)으로 고친 다음 日産을 公開持株會社로 만들었으며, 1929년 4월에 광산부문을 日本鑛業으로 분리하였다. 이와 함께 久原광업의 1만 수천명에 달하는 株主¹⁵⁾는 그대로 日産의 주주로 계승되었고 그 때까지 久原광업 자체가 수행하던 산하기업으로의 투자 및 통합업무도 日産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久原재벌의 개조로 日産을 정점으로 하는 日産콘체른체제가 형성되어 1930년대의 발전에 대비하는 조직체제가 형성되었다.

日産은 1933년 이래 日本水産주식회사, 日産自動車주식회사, 日本化學工業주식회사, 日本油脂주식회사 등의 유력기업을 산하에 편입하면서 급속히 콘체른화되어 갔다.¹⁶⁾ 그런데 日産콘체른은 사업구성상 약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日産은 중화학공

14) 玉城 肇 [41], p. 389.

15) 공개지주회사 日本産業의 최대의 경영자원인 株主數의 추이를 보면 同社의 업적조건·급성장과 함께 1934년 하반기 2만 4,851명, 1935년 하반기 3만 3,058명으로 증가하고, 1937년 상반기 말에는 5만 1,804명에 달하였다. 1937년 상반기 말 주주의 所有株數別 構成을 보면 全株主의 98%인 5만 783명은 500주 소유미만의 '大衆株主'이고, 이 계층의 持株比率은 50%를 상회하였다. 宇田川勝 [44], p. 62.

16) 1937년 이 4개사가 日産콘체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입자본금에서 29%에 달하고 있으며, 이 4개사의 자회사(41개사)를 합하면 38%에 달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日本産業의 배당금수입의 41%는 이 4개사에서 나온 것이었다. 立松潔 [45], pp. 137~138.

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집단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지만 다른 신흥콘체른과는 달리 수산, 보험(日産火災海上保險) 등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 구제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다각적 경영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日産콘체른이 신흥콘체른으로 불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日産의 자동차공업으로의 진출이었다.

1931년에 日産산하의 戶畑鑛物이 「닷트」자동차의 경영에 참가하게 되고, 1933년에는 日本産業과 戶畑鑛物의 공동출자로 自動車製造株式會社(자본금 500만 엔)를 설립하였다. 다음 해에 이를 두 배 증자하여 日産自動車로 개칭하였다. 엔시세의 하락으로 GM, 포드의 일본내 현지조립공장과 경쟁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조건변화에 자극을 받아 자동차산업에 진출한 것이었다. 처음에 日産자동차는 GM과 제휴하여 자동차국산화를 도모하였지만, 1936년 육군의 주도하에 외국자본을 배제하고 자동차산업을 보호·육성한다는 목적으로 自動車製造事業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日産자동차는 단독으로 트럭을 중심으로 대량생산체제를 정비하여 갔다.¹⁷⁾

日産콘체른의 발전을 뒷받침한 것은 公開持株會社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한 日本産業의 강력한 금융력이었다. 日産이 산하 자회사의 지주공개로 많은 프리미엄을 얻었다는 점이 특이하였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을 보면 日本鑛業주식 15만 주, 日立製作所주식 10만 주, 1935년 日立電力주식 5만 주의 공개였는데 이를 통해 日産은 1,750만 엔의 불입금과 최저 795만 엔 이상의 프리미엄수입(창업자이득)을 획득하였다.¹⁸⁾

이상에서 살펴본 신흥콘체른의 성장과 발전의 원인은 그 자본축적의 금융적 측면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표 2>는 1937년 상반기 말 각 신흥콘체른 모회사(=본사)의 자본구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日産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는 모두 차입자본이 50%를 넘고 있으며, 자기자본의 내용에서도 불입자본금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입자본의 내용은 日本窒素, 日本電氣工業에서는 社

<표 2> 新興콘체른 母會社의 資本構成(1937년 상반기)

(單位: 1,000円)

拂入資本	145,125(51.6)	90,000(45.0)	31,250(43.6)	19,100(38.4)	4,750(48.1)
積立金	43,710(15.6)	9,540(4.8)	1,820(2.5)	2,677(5.4)	162(1.6)
株主勸定計	188,835(67.2)	99,540(49.8)	33,070(46.1)	21,777(43.8)	4,972(49.7)
社債	20,882(7.4)	73,000(36.5)	13,000(18.2)	4,400(8.9)	850(8.6)
借入金	71,490(25.4)	27,413(13.7)	25,542(35.6)	23,507(47.3)	4,110(41.6)
社外負債計	92,372(32.8)	100,413(50.2)	38,542(53.8)	27,907(56.2)	4,960(50.2)
合計	281,207(100)	199,953(100)	71,612(100)	49,684(100)	9,872(100)

자료: 高橋龜吉·青山二郎 [2], p. 209.

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株式·社債 등 자본시장으로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재벌의 본사와는 구별된다. 이처럼 자본시장을 통한 외부자금에 크게 의존함으로써 신흥콘체른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2. 重化學工業에 대한 舊財閥의 對應

신흥콘체른에 기선을 제압당하기는 하였지만 구재벌 三井·三菱도 중화학공업화에 무감각하였던 것은 아니었다.¹⁷⁾ 그러나,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구재벌의 대응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 재벌본사의 과감한 의사결정에 의한 신분야로의 진출은 기대하기가 어려웠다.²⁰⁾ 구체적으로 1934년 제철합동에서 三井·三菱이 합동에 참여하고 철강업에서 사실상 후퇴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게다가 三井·三菱 등의 구재벌은 본래 중화학공업분야로의 투자도 빈약한 상태여서 기존기업의 추가투자외 그 다각화로 중화학공업화에 대응하였다.²¹⁾ 구재벌이 본격적으로 중화학공업에 참여한 것은 1937년의 중일전쟁 이후였다.

三井재벌의 경우 1930년대의 투자확대를 주도한 것은 三井物産과 三井鑛山이었다(〈표 3〉). 1933년 11월에 “물산회사의 활동력을 공업적 투자방면으로 확충한다”는 목적으로 査業課를 설치한 三井物産의 투자가 특히 활발하였다. 그러나, 그 투자의 내용을 보면 東洋레이온의 増資引受등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사업영역확대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商域擴大를 위한 광공업 전체에 대한 투자가 중심이었다.²²⁾

三井物産보다 더욱 적극적이었던 것은 三井鑛山이었다. 아직 분권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三井鑛山三池染料工業所에서는 1926년 人造藍 합성에 성공하고, 1931년 2월 일본 최초의 人造藍공장을 완성하였다.²³⁾ 연생산능력은 1,000톤으로 완전가동시에는 국내수요를 충족시키는 물론 세계총생산량의 20%를 생산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불황

17) 橋本壽朗 [17], pp. 124~125.

18) 志村嘉一 [49], p. 232. 19) 柴垣和夫 [32], p. 119.

20) 이러한 분위기는 三井물산이 인건사공업으로 진출하기로 결정한 다음 東洋레이온을 설립하기까지의 三井合名의 태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당시 三井合名 이사장인 團琢磨는 신회사의 설립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반대하였다. 그 취지는 “인건사회사도 취지는 상당히 훌륭한 것이지만 아무래도 신흥과학공업이기 때문에 완성까지는 용이하지 않다. 위험한 것은 잠시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었다. 森川英正 [29], p. 176.

21) 森川英正 [29], pp. 164~165.

22) 橋本壽朗 [17], p. 134.

23) 당시 人造藍의 연구는 三井만이 하고 있었고 日本染料는 중지하고 있었다. 1929년 4월 정부는 染料製造獎勵法을 개정하여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한 이후, 같은 해 10월 獎勵品目에 人造藍을 추가하고 三井鑛山三池染料工業所에 年額 340만 엔의 장려금을 교부하였다. 염료공업소가 정부보호정책의 혜택을 입은 것은 이것이 최초였다.

〈표 3〉 三井財閥의 株式投資(1929~1939年)

(單位: 1,000円)

1929	281,736	40,281	24,544
1930	282,253	40,021	24,166
1931	275,285	40,292	25,642
1932	275,012	41,769	27,291
1933	270,387	46,208	32,331
1934	259,392	54,784	39,320
1935	264,271	61,977	44,890
1936	278,831	70,795	50,968
1937	301,233	114,808	54,605
1938	342,812	135,210	77,092
1939	343,926	166,783	80,059

자료: 松元 宏 [32], p. 18.

의 영향으로 이 공장이 조업을 시작한 것은 1932년 4월부터였다. 三井財閥의 합성염료 생산능력은 1937년의 시점에서 對 전국비 42%로 업계 최고였다.²⁴⁾ 三池염료공업소는 1941년 4월 三井광산에서 독립하여 三井化學工業株式회사가 되었다.

합성유안의 기업화는 三井광산이 1929년 1월 鈴木商店系 第1窒素공업의 주식과 암모니아 합성법(클로드법)의 특허를 臺灣銀行으로부터 매입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공장 건설은 다음 해부터 시작되어 1931년 8월 三池窒素(자본금 1,000만 엔)가 설립되었다. 여기서는 三井鑛山三池染料工業所의 石炭乾留事業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석탄가스(코크스爐가스)를 원료로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三井鑛山の 三池精鍊所에서 硫酸을 공급받아 유안을 합성해 내었다.

그리고 三井鑛山은 1933년 4월에 東洋高壓(자본금 2,000만 엔)을 설립하고 水性가스법(듀폰법)에 의한 암모니아생산을 시작하였다.²⁵⁾ 클로드법은 코크스 생산의 부산물인 석탄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규모가 제한되었지만, 수성가스법은 코크스 그 자체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생산이 가능하였다. 그 결과 1937년이 되면 신흥재벌이 압도적 위치에 있는 유안생산에서 東洋高壓은 對 전국비 16.3%를 생산하여 소화비료 다음의 전국 2위의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다. 처음에 東洋高壓을 새로 설립하게 된 것은 신규공업회사는 5년간 사업세가 면제된다는 세법상의 특권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

24) 持株會社整理委員會 [10], p. 528.

25) 安岡重明 編 [38], pp. 309~310.

고, 따라서 면세효과를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된 1937년 2월 東洋高壓은 三池窒素를 합병하였다. 東洋高壓과 三池窒소의 합병으로 三井鑛山 산하의 비료사업은 일체화가 이루어졌다.

三菱재벌도 1930년대에 찾아온 사업상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三菱은 비교 우위산업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던 三菱鑛業, 三菱造船, 三菱航空機, 三菱電機 등의 分系會社와 旭硝子が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급성장하였다(〈표 4〉). 1934년에는 三菱조선과 三菱항공기가 합병하여 三菱重工業이 설립되었다. 합병에 대해서는 회사내외의 반대가 있었지만 三菱合資회사 사장 岩崎小彌太의 주도하에 감행되었다.²⁶⁾ 합병과 동시에 増資가 이루어져 자본금은 5,500만 엔이 되었으며 三菱합자가 소유하고 있던 조선회사 주식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후 三菱중공업은 업적이 부진하였던 橫濱船渠를 母회사인 日本郵船의 중개·요청을 받아들여 1935년에 합병하였다. 이리하여 三菱重工業은 조선, 항공기, 엔진, 大型 緞·鑄造品을 생산하는 일본 최대의 重機械제조업체가 되었다.

三菱의 신규사업부문으로의 진출에서는 石油精製業과 石炭化學工業으로의 진출이 중요하였다. 1931년 三菱과 캐나다의 聯合石油會社와 공동출자로 三菱石油(자본금 700만 엔)을 설립하였다.²⁷⁾ 三菱에서는 合資 30%, 鑛業 10%, 商事 10%의 出資比率이었지만 이 사업에서 주도권을 가진 것은 三菱상사였다. 三菱은 이 사업을 '國家의 大事業'으로 보고 합자, 광업, 상사의 三社가 협력하여 창설하게 된 것이고, 1932년에 精製設備를 완성하였다.

석탄화학공업으로의 진출은 三菱鑛業의 牧山骸炭製造所의 경영을 인계받아 三菱鑛業과 旭硝子の 공동출자로 1934년 8월 日本타르工業(자본금 5,00만 엔)을 설립함으로써 이루어졌다.²⁸⁾ 1935년에는 牧山에 염료중간물공장이 세워지고, 다음 해 黑崎공장에서 염료의 상업적 생산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의 同社는 소규모였으며 경

26) 岩崎사장의 眞意는 불황에 약한 三菱조선과 근대병기수요를 타고 있는 三菱항공사를 합병시켜 경영과 기술의 안정·확대를 도모한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 당시 財閥批判의 소용돌이 속에서 轉向과 동시에 독점화의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1933년 5월에는 王子製紙·富士製紙·樺太工業 三社의 합병에 의한 製紙大合同, 같은 해 7월의 大日本'비루'·日本맥주·鑛泉 三社의 합병에 의한 '비루'大合同 등이 진전되었다. 특히 1934년 1월에는 1933년 4월의 일본제철회사법에 근거하여 製鐵大合同이 실현되어 三菱의 兼二浦제철소는 여기에 흡수되었다. 또한, 일본제철과 마찬가지로 조선업과 항공기제조업과 같은 '國策的 産業'에는 국가의 통제와 보증이 강화되고, 당연한 추세로서 해군공창과 육군병기창을 중심으로 '일본중공업주식회사'와 같은 특수회사가 창립될 것이라는 것이 '필연적 동향'이라는 견해까지 나돌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岩崎 사장은 三菱에 있어서 군수공업부문의 강화를 도모하여 三菱製鐵의 兼二浦제철의 상실을 조선·항공기 두 회사의 합병에 의한 거대회사 三菱重工業의 설립으로 보완한다는 생각이었다. 旗手 勳[19], p. 364.

27) 岩井良太郎 [8], p. 269.

28) 浜淵久志 [26], p. 289.

〈표 4〉 三菱合資와 三菱系企業의 純利益

(單位: 1,000円)

1929	3,499	85	126	7,735		1,943	11,675	642	669	14,413
1930	1,571	△19	59	4,624		352	7,654	711	729	6,438
1931	295	△583	△576	2,589	△195	393	7,722	683	729	2,344
1932	25	△259	△614	3,811	427	△1,622	10,469	1,008	730	1,538
1933	1,234	2,194	1,015	9,355	△609	2,196	10,614	1,229	1,313	5,076
1934	3,858	△8,040	1,725	12,624	△154	2,197	11,778	1,382	1,117	2,138
1935	7,005		2,588	15,440	676	2,807	10,563	1,343	1,499	10,541
1936	9,813		3,108	17,616	1,558	850	10,383	1,443	1,771	13,894

자료: 麻島昭一 [24], pp. 94~95.

영도 적자상태였다.

일본타르공업이 합성암모니아공업으로 진출하기로 결정한 것은 1935년 9월로서, 三菱의 이 분야로의 진출은 다른 재벌에 비해서는 늦은 편이었다. 생산방법으로는 독일의 I. G. 화르벤(I. G. Farben A. G.)으로부터 하버-보슈(Haber-Bosch)법을 채용하고 암모니아합성에 필요한 수소가스는 원료탄을 직접 가스화하는 윙클러(Winkler)방식으로 생산하였다. 이와 같은 염료공장의 확장, 합성암모니아사업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본타르공업은 1936년 9월에 500만 엔에서 3,000만 엔으로 대폭 증자하였다. 그 직후 일본타르는 日本化成工業으로 회사명을 바꾸었는데, 三菱合資는 이 회사의 경영담당자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도록 출자를 하지 않았다.²⁹⁾

住友재벌은 別子銅山の 精鍊所에서 나오는 廢가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또한, 매연방지정책으로 1913년 住友總本店의 직영사업으로 新居浜에 비료제조소를 설립하였다. 여기서 亞硫酸가스를 처리하여 硫酸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원료로 過磷酸石灰를 제조하게 되었다. 新居浜공장은 1914년에 住友肥料製造所로 독립하게 되었지만 경영은 그다지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고 회사의 규모도 작았다.

住友肥料製造所에서의 화학비료공업은 합성암모니아공업으로 진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유안생산의 발전가능성을 내다보고 이 분야에 진출하여 사업의 다각화를 도모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 과린산석회가 硫酸의 소비선으로서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그 소비선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유안을 생산하게 되었다는 측면도 있었다. 암모니아합성법은 수성가스법이 이용되었고 공장이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

29) 橋本壽朗 [18], p. 136.

한 것은 1931년 4월이었지만, 同社의 유안생산능력은 1937년의 경우 日窒, 森, 三井 다음의 지위(전국 점유율 9%)를 차지하게 되었다.³⁰⁾ 그리고 이와 같은 합성암모니아사업에서의 성공을 배경으로 住友肥料製造所는 1934년 2월 2,000만 엔으로 倍額 증가하면서 社名을 住友化學공업으로 고쳐 화학비료 이외의 분야로의 다각화를 더욱 추진하여 갔다.

住友化學工業은 原料코크스의 자급을 위하여 1936년에 코크스爐를 신설하고 石炭乾留事業에 진출하였다. 이를 통해 住友化工은 많은 부산물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석탄화학공업에서도 확고한 기반을 얻을 수 있었다. 더구나 그 타르부산물은 당시 제후를 강화하고 있던 日本染料에 공급하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住友는 同社에 자본참여를 하여 1937년에는 최대주주가 되었다.³¹⁾ 日本染料는 1944년에 住友化學에 합병되는데 1927년 당시 염료생산에 있어서는 三井, 일본화학공업 다음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어,³²⁾ 이 회사를 재벌산하로 편입함으로써 住友의 화학공업은 새로운 면모를 가지고 전개되어 갔다.

1935년 9월 住友伸銅鋼管과 住友製鋼所가 합병하여 住友金屬工業(자본금 4,000만 엔: 이하 住金)이 설립되었다. 伸銅鋼管과 製鋼所의 사업은 모두 금속분야에 속하여 제조품종, 설비내용, 제품판매, 원재료의 구입 등 兩社는 중복되는 것이 많았다. 이에 경영의 합리화 및 기술의 종합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사가 합동하여 새로이 설립된 것이 住金이었다. 住金은 합병 직후 자본금을 5,000만 엔으로 늘려 住友聯繫 株式会社 가운데 최대회사가 되었으며, 이 후 住友재벌의 중심적 존재로 발전하였다.³³⁾ 住金은 항공기용품, 함선용품, 병기용품 등 군수소재를 중심으로 생산하였다. 그러나, 1935년부터 1937년 사이에 伸銅, 製鋼, 鋼管의 세 공장에서 군수품생산이 증가하고 있었지만, 군수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전후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기 住金の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기술연구와 설비개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술연구에서는 해밀턴式可變節프로펠라의 제조와 超超듀랄류민(ESD)의 연구를 시작하였다. 설비개량에서는 제강소에서 高周波電氣爐의 고정설치 및 大型燒鈍爐의 신설이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자금조달을 위해 同社에서는 1937년 자본금을 1억 엔으로 증가하여 중일전쟁 이후 본격적인 생산확충을 위한 준비체제를 정비하였다.

30) 柴村羊五 [35], pp. 425~427.

31) 대공황기에 湯川 총이사는 日本染料에 '嚴秘裡에 금융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하였지만, 1934년 일본염료와 경영방침을 둘러싸고 대립이 발생하였다. 이 때 小倉 총이사는 비밀리에 住友信託을 통하여 同社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여 3년 후 1937년 12월에 住友의 保有株數는 全株數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어 筆頭株主가 되었다. 橋本壽朗 [18], p. 133.

32) 持株會社整理委員會 [10], p. 528.

33) 作道洋太郎 編 [46], p. 289.

住友는 1933년 1월 알루미늄제조의 공업화를 시작하여 住友化學의 공장내에 알루미늄의 半工業的 試驗工場을 설립하였다.³⁴⁾ 同工場은 조선 玉理山의 명반석을 원료로 하는 알루미늄의 추출에 관한 연구, 알루미늄의 半공업적 시험의 실시, 알루미늄의 전해 시험 등을 약 1년 반 계속하여 품위 99.4% 이상의 순일본산 알루미늄地金を 제조하는데 성공하였다. 1934년 6월에 住友알루미늄제련주식회사를 창립하고 제1기 계획에 따라 1935년에 본공장을 新居浜에 준공하였다. 同社의 원료인 알루미늄은 住友化學과 飾磨化學에서 절반씩 공급받기로 하였다.³⁵⁾ 그러나, 住友의 알루미늄제조는 높은 생산비, 듀랄류민의 원료로는 부적합하다는 資源局의 판정 등 여러 문제로 인하여 부진을 거듭하였다. 결국, 1937년 6월 알루미늄의 원료를 명반석에서 보오크사이트로 전환한 뒤에 비로소 알루미늄 생산은 본궤도에 올랐다. 1937년 住友알루미늄제련의 생산량은 對전국비 8%로 日本電工, 日滿알루미늄, 日本알루미늄 다음의 4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재벌은 신흥콘체른과는 달리 매우 안정된 금융적 기반을 가지고 중화학공업분야에 진출하였다. 三井과 三菱의 본사³⁶⁾ 및 직계회사의 예를 들어 구재벌의 자본축적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 5〉 三井·三菱(본사·직계회사)의 資本構成

(單位: 100萬 円)

拂入資本金	300(71.7)	120(67.0)	6.0(29.8)	7.5(52.0)	7.3(47.7)	10.0(18.4)
積立金	107.5(25.7)	34.3(19.2)	3.9(19.4)	3.5(24.3)	2.9(19.0)	7.5(13.8)
其他 및 株主						
計定計	408.7(97.7)	161.3(90.0)	10.7(53.2)	12.0(83.3)	11.3(73.9)	18.6(34.3)
社債	-	-	-	-	-	-
借入金	5.0(1.2)	-	-	-	-	-
其他 및 社債						
負債計	9.7(2.3)	17.7(9.9)	9.4(46.8)	2.4(16.7)	4.0(26.1)	35.6(65.6)
以上合計	418.4(100)	79.0(100)	20.1(100)	14.4(100)	15.3(100)	54.2(100)

자료: 志村嘉一 [49], pp. 129~131.

34) 『東洋經濟新報』 [1], 1935년 4월 20일.

35) 作道洋太郎 編 [46], p. 303.

36) 재벌본사의 자본축적에 관한 자료는 1920년대의 것으로 본고가 다루고 있는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1930년대 중반까지는 재벌본사의 축적· 지배구조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사용하여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표 5〉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三井合名과 三菱合資는 지주회사로서 재벌의 정점에 있으면서 재벌금융자본 고유의 자기금융구조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자금원천은 기본적으로 재벌가족의 출자에 의한 주식자본금과 산하 제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나오는 배당수입이었다. 이렇듯 본사의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자기금융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콘체론의 중심부를 형성하고 있는 財閥直系회사의 경우를 보면, 우선 三菱계 두 회사(三菱重工業, 三菱鑛山)의 주요자금원천은 자본금, 적립금 등 자기자본의 비율이 높고 1936년에는 사채, 차입금 등 장기외부부채가 없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자본금의 비율이 40.9%로 매우 높다는 점이다. 三井직계회사인 三井物産, 三井鑛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기자본비율이 높았다.

Ⅲ. 戰時經濟下 新·舊財閥間·競爭의 激化

1. 舊財閥 傘下 重化學工業의 急成長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 일본은 전면적인 戰時經濟통제하에 들어갔다. 1937년 이전의 경제통제는 間接統制로서 정부가 직접 기업과 산업에 개입하여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기구의 존재와 기능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中日戰爭의 발발 이후에 등장한 경제통제는 정부에 의한 직접통제였다. 이러한 통제의 강화는 대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독점자본에 최대한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³⁷⁾ 이윤의 실제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三菱重工業의 경우 1932년 上半期에 20만 엔의 결손을 보았으나 1936년 상반기에는 480만 엔, 1938년 상반기에는 600만 엔의 이익을 내었다. 또한, 일본의 大株式會社の 이익은 1929년 상반기를 100으로 할 때 1936년 상반기는 128, 同 하반기는 134, 1937년 상반기에는 174, 同 하반기는 183, 1938년 상반기는 195, 同 하반기에는 209가 되었다.³⁸⁾ 대재벌은 이러한 이윤을 목표로 적극 중화학공업 부문으로 진출하였으며,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군수생산의 증가로 산업구조의 중화학공업화가 더욱 진전되었다.³⁹⁾

1936년부터 1941년까지의 5년간에 중화학공업의 비율은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49.2%에서 66%로 16.8% 증가하였다. 중화학공업 가운데에서도 금속이나 화학에 비해 기계기구의 구성비가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따라서, 중화학공업화의 진전은 '기계공업

37) 姜東鎮 [12], p. 401.

38) 守屋典郎 [33], p. 302.

39) 金宗炫 [14], p. 244.

〈표 6〉 工業部門別 生産額의 推移

(單位: 100萬 円, %)

紡織	3,654 (29.8)	4,840 (15.8)	1.3배
金屬	2,208 (18.0)	6,065 (19.9)	2.7
機械器具	1,716 (14.0)	9,093 (29.8)	5.3
窯業	329 (2.7)	725 (2.4)	2.2
化學	2,110 (17.2)	4,997 (16.3)	2.4
製材·木製品	280 (2.3)	1,158 (3.8)	4.1
印刷製本	234 (2.0)	385 (1.2)	1.6
食料品	1,259 (10.2)	2,502 (8.2)	2.0
其他工業	440 (3.6)	727 (2.4)	1.7
가스 및 電氣	21 (0.2)	79 (0.2)	3.8
計	12,257 (100)	30,537 (100)	2.5

자료: 日本銀行調査局 [9], p. 185.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산업별구성비.

화'의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었는데,⁴⁰⁾ 이는 기계공업이 함정·항공기라는 2대 兵器部門과 자동차·선박 등의 운수수단 및 工作機械·重電機器 등 基幹의 노동수단의 생산부문을 포함하고 있어 군수생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재벌의 투자분야도 전시하의 산업구조·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크게 변화하였다. <표 7>에서 3대 종합재벌의 불입자본금 기준의 산업별구성을 보면 일본내기업의 重化學工業化率(불입자본금총액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부문의 비율)은 三井의 경우 1937년의 22.1%에서 1941년에는 39.9%로, 三菱은 같은 기간에 27.1%에서 36.5%로, 住友도 같은 기간에 35.1%에서 65.5%로 상승하고 있다. 중화학공업으로의 진출이 가장 늦은 三井이 주로 기계기구공업부문을 급속히 확대하여 三菱을 능가하고 있는 한편, 住友는 점차 그 중화학공업재벌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특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 준 품목을 보면 <표 8>과 같다. 여기서 병기, 코크스, 전기기계, 선박 등은 모두 구재벌자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었다. 工作機械에서는 三井工作機, 芝浦공작기계(三井系), 三菱電氣가 特殊鋼에서도 住金, 日本製鋼所(三井系), 東京鋼材(三菱系) 등 3대 구재벌계의 대기업이 유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⁴¹⁾ 이처럼 군수와 관계가 깊고 전시하에 급성장한 부문을 산하에

40) 澤井實 [51], p. 152.

41) 岡崎哲二([16], pp. 365~368)는 1935년의 시점에서 광공업대기업 가운데 三井, 三菱, 住友系の 위치를 보면 재벌계기업은 상위 30社 중 4社, 60社 중 10社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재벌계기업이 최고수준의 기업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으며, 따라서 재벌계기업이 戰前의 대

〈丑 7〉 財閥支配企業의 産業別 構成(拂入資本金)

(단위 : 1,000円, %)

三井	金融業	70,500(11.5)	70,500(5.4)	169,375(5.5)
	鑛業	162,550(26.5)	326,039(25.1)	481,850(15.8)
	重化學工業	135,640(22.1)	518,570(39.9)	1,730,166(56.6)
	輕工業	84,802(13.8)	158,390(12.2)	273,698(8.9)
	其他	159,125(26.0)	226,670(17.4)	403,891(13.2)
三菱	金融業	127,000(22.1)	127,000(10.6)	159,875(6.2)
	鑛業	106,850(18.6)	243,120(20.3)	274,275(10.6)
	重化學工業	155,625(27.1)	436,750(36.5)	1,491,207(57.5)
	輕工業	66,050(11.5)	91,850(7.7)	65,280(2.5)
	其他	118,573(20.7)	297,925(24.9)	604,576(23.3)
住友	金融業	58,250(15.1)	58,250(10.3)	65,425(4.1)
	鑛業	34,150(8.8)	341,501(6.1)	115,650(7.2)
	重化學工業	136,300(35.2)	369,550(65.5)	1,293,310(80.5)
	輕工業	36,550(9.4)	8,100(1.4)	29,312(1.8)
	其他	126,600(31.4)	94,350(16.7)	102,485(6.4)

자료: 持株會社整理委員會 [11], pp. 396~401, pp. 408~412.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업종별구성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구재벌이 전시하에서 확대·발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재벌자본은 전쟁이라는 國策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갔다.⁴²⁾

이제 각 재벌의 중화학공업 가운데 전시하에서 발전한 중심적 기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三井재벌은 기계·금속공업부문에 직제산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대신 芝浦製作所와 日本製鋼所 등 傍系기업이 군수와 결합되어 급속히

기업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광공업에 한정해서 戰前의 기업을 고찰할 때 중요한 것은 오히려 비재벌계 기업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군수공업과 관련이 깊은 알루미늄 같은 것은 1937년의 경우 日本電工, 日滿알루미늄, 住友, 日賣 등 4개의 대기업계 회사들이 100% 생산하고 있었다. 造船의 경우에도 三菱이 전체의 35.4%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시경제하에서 중요한 것은 軍需부문과 관련된 기업의 동향일 것이다. 군수공업에서의 재벌의 비중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井上晴丸·宇佐美誠次郎 [48], pp. 64~66을 참조.

42) 金宗炫 [13], p. 441.

〈표 8〉 品目別 生産額의 增加(1936~1941年)

(단위 : 100萬 円)

兵 器	57	1,980	34.7배
工 作 機 械	36	404	11.2
特 殊 鋼	42	441	10.5
製 材	135	609	4.5
코 크 스	79	347	4.4
銃 鐵	90	388	4.3
賣 藥	113	434	3.8
電 氣 機 械	236	892	3.8
自 動 車 · 部 品	128	444	3.5
軍 工 廠	762	2,261	3.0
船 舶	111	322	2.9
小 幅 絹 織 物	113	314	2.8
工 業 藥 品	327	763	2.3
普 通 鋼	996	2,246	2.3
非 鐵 金 屬	162	344	2.1
製 紙	245	503	2.1

자료: 原朗 [42], p. 267.

발전하였다. 芝浦제작소는 1939년 7월에 輕電機공업의 최대기업인 東京電氣株式회사와 합병하여 東京芝浦電氣株式회사(이하 東芝)가 되고, 중전기와 경전기를 모두 제작하는 거대기업이 되었다.⁴³⁾ 193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同社의 중전부분의 수주고에 있어 直接軍需의 비율은 1936년 하반기의 3.8%에서 1939년 하반기에는 15.7%가 되고 또 그 절대액은 13배 증가하였다. 직접군수 이외의 시장으로서는 만주와 조선의 개발을 위한 전력용機器와 航空機用輕金屬의 電解플랜트 등 소위 생산력 확충용機器의 수요급증이 同社의 발전을 가져왔다.

東芝는 급격한 수주증가에 (1) 공장확충, (2) 자회사설립·기존기업의 계열화, (3) 하청조직의 정비라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東芝(합병 전의 두 회사를 포함)에서는 중일전쟁의 발발로부터 1941년까지 14개의 공장이 증가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신공장설립이 7건, 기존공장의 매수 6건, 관계회사의 합병 1건이고 이 기간에 확인될 수 있는 것에

43) 芝浦제작소와 東京電氣株式회사는 종래 資本系統의 관련, 傍系사업의 공동경영, 제품판매상의 聯繫 등 밀접한 관련을 많이 가지고 있어, 兩社의 경영을 합동하여 한층 더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면 일본 산업발달에 공헌하는 바가 많을 것이라는 것이 합병의 辯이었다. 東京芝浦電氣株式會社 編 [4], pp. 101~102.

만 한정한다면 자회사 13사의 설립, 기존기업 8사의 계열화를 실시함으로써 산업콘체른체제(=기업그룹)를 구축하였다.⁴⁴⁾ 자회사설립의 동기는 수입이 어려워진 대형공장 기계와 압연기의 생산을 위해 芝浦工作機械(1938년 설립), 芝浦共同工業(1939년 설립), 重電部門의 군수품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芝浦製作所(1939년 설립) 등 다양하였지만, 하청기업과 함께 이러한 자회사망이 수주동향의 변화에 대응하여 東芝콘체른 전체의 유연한 생산체제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傍系の 北海道炭鑛汽船의 자회사인 日本製鋼所는 유력한 兵器(대포, 機銃, 폭탄, 화약, 폭약 등)생산업체였기 때문에 군수에 뒷받침으로 급성장하여 불입자본금은 1937년의 1,500만 엔에서 1941년에는 4,500만 엔으로 증가되었다. 다른 한편, 화학공업에서는 三井鑛山の 三池染料工業所가 역시 이 시기 군수로의 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져 1937년에는 생산총액 전체의 5%에 지나지 않았던 화학병기약품의 비율이 1941년에는 24%까지 증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염료의 생산액은 같은 기간에 26%에서 13%로 저하되어 同社는 염료공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군수에 기초한 타르계화학공업이 되었다.⁴⁵⁾ 三菱재벌에서는 합정과 항공기생산에서 업계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三菱重工業이 전시하 콘체른의 중심적 존재였다. 三菱重工業은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항공기생산에서 中島飛行機와 함께 대표적 기업이었을 뿐만 아니라(〈표 9〉참조), 1937년부터 1941년간 평균 국내상선·합정전조량(군공창을 제외)에서 각각 30%와 29.9%를 차지하고 있어 상선에서는 제1위, 합정에서는 川崎중공업 다음으로 제2위였다.⁴⁶⁾ 그 외에 三菱재벌의 병기부문에서는 日本光學工業이 폭격조준기와 쌍안망원경 등 광학병기를 제조하는 최대기업이었다.

三菱製鐵의 자회사였던 東京鋼材도 1936년 이래 점차 설비를 확충한 결과 고정자산은 1936년 3월에서 1941년 4월에 걸쳐 3배 증가하였다.⁴⁷⁾ 東京鋼材의 업적 향상과 규모 확대의 결과 同社는 1940년 12월에 본사인 三菱社의 分系회사(= 직계회사)로 승격하여 명칭도 三菱鋼材로 바꾸었다.

다음으로 日本化成工業은 코크스부문이 여전히 영업의 중심이었지만, 1930년대 후반에는 폭약과 有機유리 등 군수용의 약품부문에서의 다각화가 진전되었다. 同社의 총수입은 1941년에는 1937년의 6.8배가 되고 영업수익도 5만 엔에서 560만 엔으로 크게 증가하였다.⁴⁸⁾ 또한, 三菱은 1941년 日本알루미늄(1935년에 三井, 三菱, 古河, 臺灣電力

44) 澤井 實 [51], pp. 162~163.

45) 持株會社整理委員會 [10], p. 521.

46) 浜淵久志 [26], p. 280.

47) 柴孝夫 [37], p. 149.

48) 三島康雄 [28], p. 197.

〈표 9〉 航空機 各社の 機體生産實績(1937~1941年)

(單位:機, %)

1937	320 (22.3)	358 (25.0)	188 (12.1)	264 (18.4)	298 (22.2)	1,428 (100)
1938	914 (29.3)	973 (31.2)	352 (11.3)	307 (9.9)	571 (18.3)	3,117 (100)
1939	1,194 (26.0)	1,162 (25.3)	422 (9.2)	784 (17.1)	1,010 (22.4)	4,572 (100)
1940	1,147 (25.2)	1,077 (23.7)	278 (6.1)	1,096 (24.1)	954 (20.9)	4,552 (100)
1941	1,697 (30.7)	1,085 (19.6)	733 (13.3)	1,048 (19.0)	963 (17.4)	5,526 (100)
合計	5,254 (27.4)	4,655 (24.3)	1,973 (10.3)	3,499 (18.2)	3,796 (19.8)	19,195 (100)

자료: 藤田誠久 [21], p. 93.

주 : 기타 8社는 日本國際, 愛知, 川西, 九州, 日本, 日立, 富士, 昭和.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이 2배로 증가할 때 그 출자비율을 29.4%로 증가시켜 三井(3.8%), 臺灣電力(6.6%), 古河(5.2%)를 누르고 同社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1941년에 알루미늄의 생산에서 전국의 28%, 알루미늄생산에서 1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알루미늄을 얻은 것은 항공기산업이라는 최대의 알루미늄소비부문을 가지고 있는 三菱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

住友財閥의 주력인 住金도 1930년대 후반에 그 규모가 계속 확대되어 매상고도 1940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하여 1937년의 1억 1,684만 엔에서 1941년의 2억 8,238만 엔으로 약 2.4배가 되었다. 총매상고에서 차지하는 군수의 비율은 1937년의 51%에서 1941년에는 78%로 상승하고, 군수 가운데는 항공기용 재료·부품의 비율이 1937년의 58%에서 1941년에는 72%에 달하였다. 곧 듀랄류민제품과 프로펠라 생산의 확대가 住金の 급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제품은 일본내에서 그 품질이나 양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⁴⁹⁾ 1937년부터 1941년 사이의 거액販賣先은 해군, 三菱重工業, 中島飛行機, 육군, 철도성의 순이고, 이 상위 5개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⁵⁰⁾

49) 東洋經濟新聞社 [5], p. 36.

50) 麻島昭一 [23], pp. 142~144.

住友알루미늄製鍊도 1937년에 원료를 보오크사이트로 바꾸면서부터 생산이 본래도에 올라 순조롭게 발전하여 갔다. 판매량은 1937년의 1,119만 톤에서 1941년에는 1만 26톤으로 증대하고 전국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도 같은 시기에 8%에서 16%로 2배 증가하였다. 판매선은 住金경유의 군수가 중심이고 군수의 비율은 1939년에는 82%에 달하고 있다.⁵¹⁾

住友機械製作도 1930년대 후반에 급성장한 기업이었고, 그 판매액은 1936년의 656만 엔에서 1941년의 2,089만 엔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군수의 비율은 1941년에도 약 20%에 지나지 않고 기중기, 제철용기계, 광산용기계 등 民需의 급증이 그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었다.⁵²⁾ 채산면에서도 軍需보다는 民需쪽이 훨씬 이익이 많은 상태였다. 중요한 노동수단인 산업기계의 생산은 간접적으로는 군수중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는 여전히 민수에 크게 의존하여 발전하였다.

끝으로 日本電氣는 이제까지의 주력산업이었던 遞信省用 전화기, 교환기 대신에 無線機, 眞空管, 電送機 등 군수제품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 회사 제품의 판매고는 1936년의 1,821만 엔에서 1941년에는 5,488만 엔으로 3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그 판로를 보면 1939년에는 여전히 18%를 나타내고 있던 遞信省用이 1941년에는 7%로 저하되고 대신 陸軍省用이 32%에서 48%로 증대하고 있다.

2. 新興콘체른의 危機와 解體

신흥콘체른도 구재벌과 마찬가지로 1930년대 후반기에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다각화와 규모의 확대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군수산업으로의 진출·전환에 있어 신흥콘체른은 구재벌에 비해 몇 가지 불리한 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로, 사업기반에서 기계공업의 비중이 낮았다는 점인데, 이는 특히 日窒·森·日曹 등 電氣化學工業을 기초로 발전한 콘체른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앞에서 본 것처럼 1930년대 후반기에 급성장을 한 것은 중화학공업 가운데에서도 특히 기계공업이었고, 그에 비해 화학공업은 오히려 정체상태였다. 게다가 신흥콘체른의 주요 사업기반인 가성소다, 화학비료, 화학섬유의 성장률은 그 民需產業的 성격 때문에 이 시기 화학공업 전체의 평균성장률보다 낮았다.

둘째로 1930년대 후반 신흥콘체른의 발전을 뒷받침한 전기화학공업이 구재벌의 석탄화학공업에 비해 경쟁상 불리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硫安工業에

51) 麻島昭-[23], pp. 223~224.

52) 玉城肇 [41], pp. 300~301.

서 石炭法은 電解法과는 달리 암모니아의 발생과 함께 여러 가지의 부산물이 생기고 그 가운데 대부분은 군사자재로서 전시체제하에서 필요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 생산증가가 특히 군부에 의해 요청되고 가격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한 매상이익으로 유안의 생산비용이 톤당 5~6엔 정도 절감되었다.⁵³⁾ 이처럼 구재벌의 석탄법에 의한 유안사업은 신흥재벌의 전해법보다 유리한 것이었다. 물론 신흥재벌의 경우도 森재벌의 昭和肥料은 석탄법을 채용하게 되고, 日虜도 석탄법에 의한 유안사업에 착수하였지만, 매장량이 풍부한 양질의 石炭鑛口를 독점하고 있던 구재벌에 대항할 수는 없었다. 또한, 과잉전력문제의 해소, 전력부족, 전력국가관리의 진행⁵⁴⁾은 신흥재벌의 기반인 전기화학공업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구재벌에 비해 군수공업으로의 전개에 있어 열세가 불가피하였던 전기화학공업계의 신흥콘체른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식민지의 重化學工業開發에 참가하거나 혹은 기존기업의 흡수합병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193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무리한 확대가 가져온 제모순으로 인하여 太平洋戰爭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신흥콘체른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당시 신흥콘체른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렵게 되어 외부금융기관에 크게 의존하게 된 것⁵⁵⁾도 그 해체에 박차를 가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신흥콘체른 모두가 전시경제의 전개와 함께 위기에 빠졌던 것은 아니었다. 日産콘체른과 日窒콘체른은 군부노선에 따라 식민지로 진출하여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 규모를 확대하면서 발전하고 있었다.⁵⁶⁾

日産콘체른의 경우 日立製作所, 日産自動車, 大阪鐵工所 등 군수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기계공업부문 그리고 日本鑛業이라는 유력한 광업자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시경제로의 적용은 용이하였다. <표 1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日産콘체른은 1937년과 1941년의 4년간에 회사수는 49개사에서 51개사로 증가하였고, 불입자본금은 4.8배나 증가하였다.

日産콘체른 전체의 불입자본금 증가에서 특징적인 것은 광업을 포함한 중화학공업으로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체 불입자본금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

53) 立松潔 [45], p. 163. 석탄법암모니아제조와 기술적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서 메타놀사업이 중요하다. 메타놀은 항공기연료로서 중요한 군수품이었기 때문에 전시하 급속히 생산이 증가하였다.

54) 中日戰爭 이후 전력을 국가가 통제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졌다. 이에 따라 1938년에 電力管理法·日本發送電株式會社法의 두 電力國家管理法이 성립하였다. 이것은 日本發送電株式會社를 설립하고 이 회사를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私有의 부정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財界의 반대론을 누르고 성립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三和良一 [30], pp. 142~143.

55) 1937년 상반기 日産의 경우 대체적으로 외부자금비율은 80~90%이고 반대로 자기자금비율(자기금융비율)은 10~20%에 불과하였다. 日窒의 경우도 전체 자금의 93%를 주식·사채·차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었다. 志村嘉一 [49], pp. 137~139.

56) 李鍾燾 [15], p. 172.

〈표 10〉 日産콘체른 傘下會社の 業種別 拂入資本金

(단위: 1,000円, %)

業種	業種別	1937年			1941年			
		資本金	割合	株主数	資本金	割合	株主数	
金融業	保險業	1,250	(-)	1(-)	0.3	2,750 (-)	2(-)	0.1
	小計	1,250	(-)	1(-)	0.3	2,750 (-)	2(-)	0.1
重化學工業	鑛業	193,350	(30,000)	5(1)	44.5	822,572(573,922)	9(6)	39.8
	金屬工業	-	-	-	-	280,000(280,000)	2(2)	13.6
	機械·器具工業	75,927	(-)	8(-)	17.5	524,118(112,500)	11(3)	25.4
	造船業	-	(-)	-	-	-	-	-
	化學工業	93,527	(9,839)	17(4)	21.5	194,392(21,657)	19(-)	9.4
小計	362,804	(39,839)	30(5)	83.5	1,822,082(988,079)	41(18)	86.2	
輕工業	窯業	-	-	-	-	- (-)	-	-
	農林·水産·食品業	54,817	(1,350)	8(3)	12.6	85,650 (-)	2(-)	4.2
	雜業	1,750	(-)	2(-)	0.4	-	-	-
	小計	56,567	(1,350)	10(3)	13.0	85,650 (-)	2(-)	4.2
其他	電力가스業	6,375	(-)	2(-)	1.7	10,250 (-)	2(-)	0.5
	陸運業	138	(-)	1(-)	-	- (-)	-	-
	海運業	4,000	(-)	2(-)	0.9	29,950 (-)	2(-)	1.5
	土地·建物·倉庫業	3,000	(-)	2(-)	0.7	1,000 (-)	1(-)	-
	商事·貿易	250	(-)	1(-)	-	114,650(114,650)	1(1)	5.5
小計	13,763	(-)	8(-)	3.3	155,850(114,650)	6(-)	7.5	
	總計	434,384	(41,189)	49(8)	100.0	2,066,332(1,102,729)	51(19)	100.0

자료: 持株會社整理委員會 [11], pp. 436~437, p. 453, p. 464.

주: 괄호 안은 在外會社.

업분야의 비율은 1937년의 83.5%, 1941년은 88.2%에 달하고 있었지만 경공업, 기타의 비율은 같은 기간에 각각 13.0%에서 5.9%, 3.3%에서 2.3%로 저하하고 있다. 산하 유력 기업 가운데 특히 日立製作所와 그 산하기업이 크게 성장하였는데 1937년부터 1941년 사이에 同社의 불입자본금은 4,500만 엔에서 2억 4,288만 엔으로 5.4배, 산하기업은 같은 기간에 1,350만 엔에서 1억 3,899만 엔으로 10.3배라는 경이적인 성장을 보였다. 日立제작소 자신이 하나의 산업콘체른으로서 급속히 규모를 확대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日産콘체른이 직면하고 있던 문제는 오히려 본사인 日産이 팽창하고 있던 산하기업에 제대로 자금조달을 못해 주어 그 존재의의가 약화되었다는 점이었다. 더욱이 1937년에는 二重課稅⁶⁷⁾에 따른 증세문제가 가중되어 日産은 더욱 어려운 상태에 빠

지게 되었다. 결국 日産은 이러한 곤체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滿州國' 정부의 관동군의 요청에 응하여 중국동북부의 산업개발에 나서게 되었다.⁵⁸⁾ 日産은 1937년 11월에 '滿州國'으로 이전하여 半官半民의 滿州重工業株式會社(滿業)로 개편되고 日産산하의 사업과 그 이전까지 滿鐵의 지배하에 있었던 중공업관계의 기업도 인수하여 경영하게 되었다.

日産곤체론의 규모는 '만주국'으로의 이전을 계기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1941년 滿業直系의 在滿傘下會社(10개사) 불입자본금 총액이 滿業곤체론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명백하다. 그러나, 기대되었던 만주에서의 중공업개발은 외자도입의 실패,⁵⁹⁾ 자원개발의 오산 등의 이유로 인해 鮎川の 생각대로는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만주국' 정부(= 관동군)의 개입으로 滿業에 의한 在滿산하기업의 총괄이 어렵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1942년 12월 鮎川은 滿業의 경영을 단념하고 滿業의 총재를 사임하지만, 그보다 앞서 滿業산하의 在日系企業은 이미 滿業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며, 滿業소유의 일본내 산하기업의 주식은 1941년 6월에 설립된 지주회사인 滿州投資證券株式會社(滿投)에 인수되었다.⁶⁰⁾ 그러나, 이들 기업은 日産간담회, 日産會, 주식회사 日産의 활동을 통하여 횡적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자립화를 추진한 결과 日本鑛業, 日立製作所, 日産化學工業 등의 중심기업은 각각 하나의 기업그룹을 형성할 정도로 발전을 계속하였다.⁶¹⁾

57) 1937년의 稅制改革으로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利益配當收益이 所得稅의 과세대상이 되었다. 다수의 산하기업을 가진 지주회사로서의 日産은 重複課稅에 의한 손실을 피하는 것이 당시 커다란 문제였다. 日産은 1936년에 計上된 수익액 1,947만 2,000엔의 17.4%인 337만 엔이 과세되었지만, 1937년도부터의 臨時增徴으로 약 600만 엔 정도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었다. 滿州國法人으로 편입되면 6%의 低率課稅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日産에게는 커다란 매력이었다. 原朗 [42], pp. 239~240.

58) 日産의 만주진출은 기업경영의 위기탈출이라는 측면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이는 일본의 만주 경영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관동군은 1936년 '滿州國第2期經濟建設要綱'을 책정하였지만 계획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일본재계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동군은 일본내의 산업자본가들에게 만주경제의 실정을 알리기 위해 鮎川義介, 野口遵 등에게 만주시찰을 요청하였다. 鮎川은 1936년 10월부터 약 1개월간 만주를 시찰한 후 11월에 板垣 참모장과 秋永 참모 등과 회견하고 滿州産業50年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에 따르면 만주에서는 一業一社방식을 버리고 피라미드 식의 종합적인 형태로 자원개발을 해야 하고, 자동차공업과 비행기공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기계공업을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주사변 이후 관동군은 對蘇각전 준비를 위한 자동차 및 비행기산업의 對滿유치가 긴급한 과제였다. 그만큼 만주의 종합적 개발에 관한 鮎川의 구상은 육군에 있어 매우 매력적인 것이었고, 여기서 육군수뇌 사이에 거대한 자본력과 자동차공업을 산하에 가진 日産을 만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었다. 관동군의 요청에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였지만, 결국 鮎川은 만주진출을 결심하게 되었다. 鈴木隆史 [40], pp. 269~271.

59) 鮎川이 만주진출을 옹찬 것은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37년 일본해군이 중국 양자강에서 미국 기선 세 척을 폭격하고 호송하고 있던 미국군함을 격침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미국자본유치의 길이 막히게 되었다.

60) 持株會社整理委員會 [10], p. 81.

61) 宇田川勝 [44], pp. 65~85.

이상에서 본 것처럼 日産콘체른은 지주회사인 日産이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함께 곤란에 직면하고 산하기업의 자립성이 강화됨에 따라 해체의 길로 나아갔다. 더욱이 전시통제경제하에서는 국가에 의한 기업의 통제가 강화되고, 특히 군수산업에 대해서는 군부의 개입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자유는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도 지주본사의 산하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저하시키는 것이었다.

구재벌도 산하기업에 대한 본사의 통제력이 약화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구재벌의 경우는 전시경제에 돌입할 때까지도 본사는 물론 산하기업의 주식공개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아,⁶²⁾ 신흥콘체른과 비교하여 볼 때 재벌본사가 산하기업과 본사자신의 주식을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았다. 또한, 산하에 유력한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있던 것도 구재벌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었다. 전시경제가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서 콘체른 산하의 기업은 은행차입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融資系列이라는 횡적 관계가 지주회사와 자회사라는 종적인 관계를 대체하게 되었다. 즉, 持株會社の 資本系列에서 大銀行의 용자계열로의 재편이 이루어진 것이다.⁶³⁾ 이 때 구재벌은 은행에 의한 계열용자가 산하기업을 결합시켜 외부로부터의 지배(= 개입)를 억제하면서 산하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내부자본시장의 역할을 한층 넓혀갔다.⁶⁴⁾ 반면에 신흥콘체른은 이 과정에서 興銀등 금융기관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콘체른 내부의 의존(= 결합)관계가 저하되어 갔다.

한편, 日窒콘체른은 조선에서의 사업의 확대와 함께 滿州와 南方으로 진출함으로써 군부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전시경제에 적응하여 갔다. 日窒은 1930년대 후반에 조선, 중국에서 압록강電源開發事業, 吉林에서의 石炭液化事業, 海南島開發事業 등 모두 대규모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 시기 日窒콘체른 확대의 한 특징을 보여 주는 것이 吉林人造石油의 설립이었다. ‘만주국’ 정부요인과 관동군 간부는 압록강개발에서 보여준 日窒의 수완에 주목하여 滿州産業開發5個年計劃의 일환인 舒蘭炭田의 석탄액화사업을 요청하였다. 日窒본사의 간부진 가운데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野口の 판단하에 30%(3,000만 엔)를 출자하고 阿吾地의 기술과 경영진을 길림으로 이동시켜 경영하였다. 그 후 吉林人造石油는 중공업지대 주변의 농지개척도 포함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기도 하였으나 수마트라의 점령으로 유전이 확보되자 日窒은 길림의 사업을 滿鐵에 넘

62) 三井재벌의 경우 戰前에 이미 三井은행, 三井신탁의 주식공개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戰時期에 들어서도 직계기업은 주식공개를 극력 회피하고 있었다. 1937년과 1938년 三井物産의 增資拂入 때에도 三井合名은 소유주식의 물산으로의 매각자금을 불입금에 충당하였고, 1939년과 1940년 三井鑛山의 주식공개 때에도 그 대상은 타인으로의 양도가 금지된 三井광산관계자, 三井同族, 三井관계회사의 연고자에 한정되었다. 澤井實 [51], p. 180.

63) 石井寬治 [31], p. 310.

64) 武田晴人 [25], p. 259.

기고 탄광도 매각하였다.⁶⁵⁾

그리고 이 시기에는 日窒의 사업전개형태가 변화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전시 경제 이전 日窒의 사업전개는 電氣化學工業을 기반으로 한 사업상의 필요로 電源을 개발하였다. 전원개발의 起動力은 어디까지나 제조사업에 있었다. 곧 제조사업이 중심이고 전원개발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1937년 이후에는 日窒의 사업에 있어서 전원개발이 제조사업보다 선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電力多消費사업이 한층 더 확대되었다.⁶⁶⁾

이와 같은 적극적인 사업전개로 본사와 산하기업을 합친 日窒콘체른의 규모는 1937년의 27개사, 2억 9,020만 엔에서 1941년에는 64개사, 8억 9,895만 엔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업전개로 日窒은 興銀 등 외부의 정부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의존도가 높아졌다.⁶⁷⁾ 이후 전시체제의 강화와 함께 군부와 식민지관료의 개입도 강화되고, 1940년에는 野口가 병으로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 콘체른은 점차 자립성을 상실하여 갔다. 日窒은 전시중 식민지, 점령지역에서의 사업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패전으로 막대한 재외자산을 상실함으로써 財閥解體를 맞이하기도 전에 붕괴되었다.

森콘체른은 森興業을 정점으로 하는 콘체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지만 관계회사인 東信電氣, 昭和肥料 등의 유력기업에 대한 자본적 지배력은 약하였다. 그러한 기업의 경우에는 森 자신이 전무와 사장에 취임하여 경영의 실권을 장악함으로써 콘체른의 일가를 유지시켜 나가는데 불과하였다.⁶⁸⁾ 그리고 森直系의 子會社는 중심기업인 日本電氣工業과 昭和鑛業을 제하면 대부분이 소규모였다. 昭和鑛業은 森콘체른의 원료자원의 자급을 위하여 국내와 조선의 鑛口를 매수하여 급속히 규모를 확대한 기업이었다. 그러나, 그 광산 중 많은 것이 貧鑛이고 여기에 자금·자재·노동력의 조달난도 가중되어 同社는 1940년경에는 경영위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 森콘체른의 지배에서 벗어나 帝國開發鑛業의 산하로 옮겨 갔다.

日本電氣工業은 森콘체른 가운데 가장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었다. 이 회사는 알

65) 金早雪 [54], p. 102.

66) 大鹽 武 [22], pp. 90~91.

67) 본래 日窒콘체른의 수익력을 뒷받침한 기속기업은 모회사 日本窒素肥料, 朝鮮窒素肥料, 旭베네르그 絹絲, 長津江水電, 朝鮮送電 등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日窒과 朝窒의 두 회사가 특출하였다. 특히 日窒에게 있어 방군의 수익력을 자랑하는 朝窒로부터의 판매수수(특허사용)료, 예금유입은 다른 외부자금과 함께 관계회사에 대한 공급자금원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배당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損金처리된 판매수수료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1941년 日窒은 朝窒의 합병이 불가피하게 되고 금융조작상의 커다란 이점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日窒의 자금조달방법은 크게 변화하여 주식·사채발행 대신에 興銀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금융기관에 전면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大鹽 武 [22].

68) 三宅晴輝 [7], pp. 164~168.

루미나의 원료로 조선반도 聾山광산의 명반석을 사용하였지만, 이 광산의 품위가 떨어짐에 따라 日本電工産 알루미늄의 품질저하, 高費用이라는 문제를 낳아 1936년 가을에는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해결을 위해 원료를 명반석에서 보오크사이트로 전환하는 동시에 규모확대를 도모하여 생산량을 1936년의 3,336톤에서 1941년의 14,730톤(4.4배)으로 크게 확대하였다. 1941년 同社의 알루미늄생산에 있어 對全國 시장점유율은 22.5%에 달하여 전국수위를 차지하고 있었다.⁶⁹⁾

이와 같은 원료의 전환은 日本電工이 전시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조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同社는 원료전환을 위한 자금을 공급한 安田銀行에 대한 의존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더구나 보오크사이트의 확보를 위하여 石原産業海運과 전면적인 제휴관계(1937년 10월)를 맺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를 계기로 石原産業海運은 日本電工의 상담역, 부사장, 감사역이라는 중요직을 장악하였으며, 이미 常務取締役 1명을 보내고 있던 安田銀行도 부사장직을 장악하게 되었다. 원료전환을 계기로 兩社는 日本電工의 경영에 대한 발언력을 강화하여 森의 통제력은 크게 저하되었다.

1939년 6월 日本電工과 昭和肥料가 합병하여 昭和電工이 설립된 것도 同社에 대한 森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일이었다. 이 합병은 당시 각광받는 군수공업으로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던 日本電工과 民需部門中心이었기 때문에 정책경향에 있던 昭和肥料를 합병함으로써 합리화와 규모의 확대를 도모하여 통제경제하에서 자금과 원료, 자재의 분배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주회사 森興業은 昭和電工의 제2위의 주주로 전락하여 자본지배력의 면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고 森은 1940년 8월에 昭和電工의 사장직을 사임하였다. 한편, 발전을 거듭하여 오던 昭和鑛業은 중일전쟁 후반기에 정책상태에 빠지게 되어 1940년 5월 森興業은 日本興業銀行(이하 興銀)의 압력으로 同社의 주식을 帝國鑛業開發에 매각하였다. 1941년 6월에는 樺太炭業이 北海道탄광기선에 합병되고, 東新電氣도 1941년 10월에 發送電설비를 日本發送電에 넘긴 후에 해체되었다. 이처럼 森콘체론은 1941년 森의 사망을 전후로 한 시기에 실질적으로 해체과정에 들어가고 있었다.⁷⁰⁾

日曹콘체론의 경우도 콘체론의 급속한 팽창이 그 해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었다. 日曹는 특히 1936년부터 1938년의 기간에 크게 팽창하였다. 持株會社인 日本曹達의 자회사수는 1935년에 겨우 5개사에 불과하였지만, 1936년에 15개사가 되고 1937년에 25개사, 1938년에 36개사로 매년 10개사 이상이 증가하였다.⁷¹⁾ 그러나, 이렇게 단기간에 획득된 자회사 가운데에는 결합있는 것이 많았다. 예를 들어, 콘체론의 4대 지주의 하

69) 東洋經濟新聞社 編 [10], p. 218.

70) 宇田川勝 [44], pp. 167~171.

71) 下谷政弘 [52], p. 31.

나인 九州曹達은 소다사업의 民需的 성격 때문에 원료자원의 할당이 제한되고 결국 1941년에는 공장을 폐쇄하였으며, 원료자원의 확보를 위해 日本鑛業은 광산과 탄광의 개발을 추진하였지만 森콘체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와 이들 기업은 日曹콘체른을 자금면에서 곤란에 빠트렸다.

이미 日曹는 콘체른의 확대를 위한 자금을 興銀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의존하고 있었지만,⁷²⁾ 산하기업의 경영악화가 표면화됨에 따라 콘체른 재건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어렵게 되어 興銀에 의한 콘체른의 정리·재편책과 中野에 대한 퇴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中野는 1940년 12월에 日本曹達의 사장을 사임하고, 이후 日曹콘체른은 興銀의 지배하에 정리통합이 진척되어 축소의 길을 걷게 되었다. 日曹콘체른의 해체·재편은 1941년 이후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소다부분에서 금속부문으로 중심을 이동한 日本曹達은 그 생산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있었다.⁷³⁾

理研의 경우도 전시하의 지나친 팽창이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 理研의 성장과정을 보면 社數의 경우는 1927년 1개사, 1936년 15개사, 그리고 1939년에 63개사로 최고에 달하고 있다. 불입자본금의 경우는 1927년 90만 엔에 불과하였지만 1936년 1,438만 엔 그리고 1939년에는 1억 1,815만 엔으로 증가하였다.⁷⁴⁾ 理研콘체른 산하에는 理研퍼스트링(1938년 10월에 理研特殊鐵鋼을 합병하여 理研重工業으로 개칭)처럼 군수의 확대와 함께 급속히 규모를 확대한 유력기업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소규모기업이고 업적이 부진한 것이 많았다. 더구나 콘체른의 급속한 팽창은 興銀등 외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콘체른의 금융난은 더욱 심화되었다.

理研콘체른의 재편은 1939년 3월 興銀의 주도하에 8개 은행에 의한 공동융자단이 결성되고 일본은행이사에서 理研重工業의 代表取締役으로 파견된 貞弘重進에 의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영리를 고려하지 않는 大河内の 독특한 경영행동, 콘체른 관리기구의 부재, 과학주의공업론의 실천면에서의 파탄, 理化學연구소로의 자금원조라는 제약에 의해 규정된 理研콘체른의 차입금의 존재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1940년 理研 各會社 株價의 폭락을 직접적 계기로 理研은 차입금반제불능에 빠졌다. 공동융자단은 추가 융자를 조건으로 理研콘체른의 재편을 요구하고, 그 결과 1941년 7월 산하 중심기업 7개사(理化學興業, 理研重工業, 理研壓延工業, 理研鍛造, 理研鑄造, 理研工作機械, 理研

72) 1940년 하반기에 日曹의 차입금은 대체로 8,000만 엔을 초과하였는데 그 가운데 4,000만 엔이 興銀측의 융자, 나머지 4,000만 엔이 野村, 三和, 第一 등의 각 은행에서 少額短期借入한 것이었다. 전시하항상적인 금융경색하에서의 증가, 합병, 흡수 등에 의한 과도한 자금팽창으로 日曹는 수요자금의 한도에 도달하였다. 이 시기가 되면 全日曹系에 있어 자금조달은 焦眉의 과제로 등장하였다. 桶口弘[3], pp. 145~146.

73) 宇田川勝 [44], pp. 188~194.

74) 齊藤憲 [50], p. 3.

鋼材)를 합병하여 理研공업이 탄생하였다. 大河內는 회장에 취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은 갖지 못하고 1942년 1월에 사임하였다.⁷⁵⁾

IV. 結 論

戰前 일본자본주의에서는 주로 구재벌, 신흥재벌 등의 콘체른이 군수공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중화학공업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中日戰爭 이후 戰時統制經濟의 진전과 함께 콘체른의 존재의의는 저하되어 갔다. 경제통제의 강화로 본사에 의한 콘체른 산하기업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자금면에서도 지주회사 대신에 금융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콘체른 산하기업의 自立性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구재벌은 주식공개로 재벌가족에 의한 閉鎖的 事業支配에서 벗어나 산하기업의 자금수요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었지만, 持株金融方式으로 급성장하여 온 신흥콘체른은 주식시장이용의 길이 막힘으로써 금융난에 직면하게 되고 興銀등 외부 금융기관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銀行借入金이 증가한 것은 구재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산하에 유력한 은행자본을 가지고 있던 구재벌은 系列融資라는 방법으로 외부지배를 막아내면서 콘체른의 결속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신흥콘체른은 전시경제의 진전과 함께 재편·해체되어 갔으나, 구재벌은 패전까지 그 실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

産業基盤에 있어서도 재래형의 중공업과 石炭化學工業에 기초를 두고 있던 구재벌 쪽이 전시경제하에서 우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日窒·森·日曹 등 전기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한 신흥중화학공업은 民需를 주요한 시장적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시하에서의 자금, 자재의 배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여기에 전력부족과 전력통제가 겹쳐 정체가 불가피하였다. 신흥콘체른이 民需部門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군수산업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군부의 의향에 따라 사업규모의 확대와 多角化를 도모하였다. 하지만, 콘체른 규모의 무리한 팽창은 도리어 신흥콘체른의 재편 및 해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日窒의 경우 일본내 기업인 旭벤베르그전사의 인건사공업은 정체에 빠지고 조선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콘체른의 존속·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중심기업이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패전으로 재외자산을 상실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타격으로 작용하여 콘체른은 붕괴하였다. 森콘체른은 알루미늄사업으로 점차 중심

75) 齊藤 憲 [50], pp. 358~361.

이동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원료전환과 昭和肥料와의 합동으로 森의 통제력은 상실되고, 자금면에서도 安田은행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日曹, 理研은 1937년을 전후로 하는 시기에 급속히 산하기업을 증가시켰으나 그 가운데에는 불량기업이 많아 금융난에 빠지게 되고 결국 興銀등 외부은행자본의 주도하에 콘체른의 해체정리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하여 1930년대 후반 軍需工業의 확대를 둘러싼 舊財閥과 新興콘체른의 경쟁에서 구재벌은 결정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구재벌은 산하의 은행자본에 의한 계열융자 그리고 戰時期에 성행한 協調融資를 통해 충분한 자금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戰前시까지 계열기업을 유지하여 갔다.

◆ 참고 문헌 ◆

〈研究資料〉

1. 『東洋經濟新報』, 1935.
2. 高橋龜吉·青山二郎, 『日本財閥論』, 1938, 春秋社.
3. 桶口弘, 『計劃經濟と日本財閥 - 轉換期日本財閥の立體的構成』, 1941, 味燈書屋.
4. 東京芝浦電氣株式會社 編, 『芝浦製作所六十五年史』, 1940.
5. 東洋經濟新聞社, 『會社かがみ』, 1942.
6. 東洋經濟新聞社 編, 『日本經濟年報』, 第16輯, 1934.
7. 三宅晴輝, 『新興コンツェルン讀本』, 1937, 春秋社.
8. 岩井良太郎, 『三菱コンツェルン讀本』, 1937, 春秋社.
9. 日本銀行調査局, 『滿州事變以後の財政金融史』, 1948, 日本銀行調査局 編, 『日本金融史資料: 昭和編』, 第27卷.
10. 持株會社整理委員會, 『日本財閥とその解體』, 第1卷, 1951.
11. _____, 『日本財閥とその解體』, 資料, 1951.

〈研究論文〉

12. 姜東鎮, 『日本近代史』, 1985, 한길사.
13. 金宗炫, 『企業者活動의 展開』, 安秉直·鄭英一 編, 『일본경제연구총서 2: 日本經濟의 近代化』, 1990, 서울대학교 經濟研究所.
14. _____, 『近代日本經濟史』, 1991, 比峰出版社.
15. 李鍾燾, 『日本經濟論 - 過去·現在·未來』, 1993, 法文社.

16. 岡崎哲二,「戰時計劃經濟と企業」,東大社會科學研究所 編,『現代日本社會 4: 歴史的
的前提』,1991,東京大學出版會.
17. 橋本壽朗,「巨大産業の興隆」,中村隆英・尾高煌之助 編,『日本經濟史 6: 二重構
造』,1989,岩波書店.
18. _____,「財閥のコンツェルン化」,法政大學産業情報センター・橋本壽朗・武田
晴人 編,『日本經濟の發展と企業集團』,1992,東京大學出版會.
19. 旗手 勳,『日本の財閥と三菱』,1978,樂遊書房.
20. 東洋經濟新報社 編,『昭和産業史』,第1卷,1950,東洋經濟新報社.
21. 藤田誠久,「航空機部門の經營」,三島康雄外 編『第2次大戰と三菱財閥』,1987,日本
經濟新聞社.
22. 大鹽 武,『日室コンツェルンの研究』,1989,日本經濟評論社.
23. 麻島昭一,『戰間期住友財閥經營史』,1983,東京大學出版會.
24. _____,「三菱財閥の金融構造」,1986,御茶の水書房.
25. 武田晴人,「獨占資本と財閥解體」,大石嘉一郎 編,『日本帝國主義史 3: 第2次大戰
期』,1994,東京大學出版會.
26. 浜淵久志,「日中戰爭下における三菱財閥の再編過程(1)」,『經濟學研究』,第30卷,第
1號,1980,北海道大學.
27. 山崎廣明,『日本化纖産業發達史論』,1975,東京大學出版會.
28. 三島康雄,「化學工業部門の急展開」,三島康雄外 編,『第2次大戰と三菱財閥』,1987,
日本經濟新聞社.
29. 森川英正,『財閥の經營史的研究』,1980,東洋經濟新報社.
30. 三和良一,『概説日本經濟史: 近現代』,1992,東京大學出版會.
31. 石井寬治,『日本經濟史』,第2版,1992,東京大學出版會.
32. 松元 宏,「財閥資本の蓄積構造」,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編,『ファシズムの國家
と社會 1: 昭和恐慌』,1978,東京大學出版會.
33. 守屋典郎,『新版 日本資本主義發達史』,1969,青木書店.
34. 柴垣和夫,『日本金融資本分析』,1965,東京大學出版會.
35. _____,「三井・三菱の百年」,1968,中央公論社.
36. 柴村羊五,『日本化學工業史』,1968,栗田書店.
37. 柴孝 夫,「製鋼事業の擴大」,三島康雄外 編,『第2次大戰と三菱財閥』,1987,日本經
濟新聞社.
38. 安岡重明 編,『三井財閥』,1982,日本經濟新聞社.
39. 林健久・山崎廣明・柴垣和夫,宇野弘藏 監修,『講座 日本帝國主義の研究 6: 日本

資本主義』, 1973, 青木書店.

40. 鈴木隆史, 『日本帝國主義と滿州: 1900~1945(下)』, 1992.
41. 玉城 肇, 『日本財閥史』, 1976, 社會思想社.
42. 原 朗, 「'滿州'における經濟統制政策の展開」, 安藤良雄 編, 『日本經濟政策史論(下)』, 1976, 東京大學出版會.
43. _____, 「戰時統制經濟の展開」, 岩波講座『日本歴史 20: 近代7』, 1976, 岩波書店.
44. 宇田川勝, 『新興財閥』, 1984, 日本經濟新聞社.
45. 立松潔, 「新興財閥」, 中村正則 編, 『體系・日本現代史』, 第4卷, 1979, 日本評論社, pp. 157~158.
46. 作道洋太郎 編, 『住友財閥』, 1982, 日本經濟新聞社.
47. 長岡新吉 編著, 『近代日本の經濟-統計と概説』, 1988, ミネルヴァ書房.
48. 井上晴丸・宇佐美誠次郎, 『危機における日本資本主義の構造』, 1951, 岩波書店.
49. 志村嘉一, 『日本資本市場分析』, 1969, 東京大學出版會.
50. 齊藤 憲, 『新興コンツェルン理研の研究』, 1987, 時潮社.
51. 澤井 實, 「戰時經濟と財閥」, 法政大學産業情報センター-橋本壽朗・武田晴人 編, 『日本經濟の發展と企業集團』, 1992, 東京大學出版會.
52. 下谷政弘, 「日本曹達から日曹コンツェルン-日曹コンツェルン形成史(3)」, 『經濟論叢』, 1984, 京都大學.
53. ベヴズネル(社會經濟調査會 譯), 『日本の財閥』, 第2卷, 1952, 岩崎書店.
54. 金早雪, 「日窒コンツェルンにおける朝鮮窒素」, 姜在彦 編, 『朝鮮における日窒コンツェルン』, 1985, 不二出版.